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dnasty.co.kr 061)320-7700, 7714

‘훈련하고 싶다면 출신 고교로 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휴식기를 맞아 출신 고등학교에서 겨울훈련에 땀을 쏟고 있다. 훈련장소는 크게 광주일고와 광주동성고로 나뉜다.

‘말형’ 이종범과 김종국, 김삼훈, 이현근 등 광주일고 출신 선·후배들은 모교인 광주일고로, 여기에 타 지역 출신인 ‘스나이퍼’ 장성호와 ‘빠른발’ 이용규도 광주일고 훈련대열에 합류했다. 미국으로 개인훈련을 떠난 최희섭도 출국 전까지 모교인 광주일고에서 몸을 만들었다.

광주일고는 메이저리그 3인방인 김병현, 서재응, 최희섭을 키워낸 허세환 감독이 지키고 있는 야구스타의 산실(産室)이다. 광주일고 훈련과는 오전엔 가벼운 스트

레칭으로 몸을 풀고 배팅훈련으로 실력을 키운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가 되면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모 스포츠센터로 이동해 2시간 가량 웨이트트레이닝으로 근력을 키운 뒤 하루를 마감한다.

최근엔 광현회 KIA 트레이닝 코치가 광주일고 훈련에 합류해 이들의 ‘체력만들기’를 돕고 있다.

광주 동성고에선 투수 한기주와 양현종이 강한 어깨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또 차세대 거포 김주형도 가세했다. 이들 셋은 동성고를 졸업한 선·후배 사이다.



■ ‘호랑이’ 겨울나기

출신고교 찾아 몸만들기 한창

광주일고·동성고에 모여 개별훈련



특히 한기주와 양현종이 동성고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고교와 프로시절 스승인 김태원 전 KIA 투수코치 때문.

김 전 코치는 올 시즌 마감 후 KIA와의 재계약 협상에서 제외되면서 동성고에서 투수 양상에 힘을 쏟고 있다.

김 코치는 “(한)기주와 (양)현종이 함께 훈련을 하고 싶다고 말해 훈련을 돕고 있다”며 “기본적인 체력훈련과 병행해 내년시즌을 대비한 몸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프로 선수들이 고등학교 운동장

에서 훈련하는 것은 자율훈련기간인 12월 동안 광주 무등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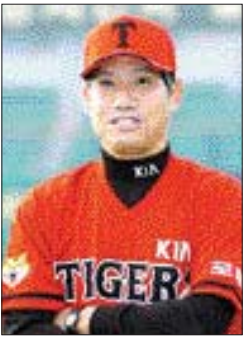
프로야구선수협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야구장에서 훈련하는 선수에게 하루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신인들과 수술한 재활선수, 1년 동안 1군 경기에 한 차례도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을 제외다.

협회 규정 때문에 훈련 장소는 다르지만 이들의 목표는 하나다. 비시즌 동안 훈련 땀을 밀거름으로 2008 시즌 ‘V10’을 이뤄내는 것이다.

내년 1월 9일 광모 스포프 캠프를 떠나기 전까지 이들의 ‘따로 또 같이’ 훈련은 계속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건열 前 KIA코치  
화순고 야구부 감독



이건열(44·사진) 전 KIA코치가 화순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새 야구 인생을 시작한다.

화순고(교장 김승호)는 20일 “지난 18일자로

이건열 전 KIA코치를 야구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창단한 화순고 야구부는 야구부원이 20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4년 미추홀기 준우승을 시작으로 2006년 대통령배 4강, 2007년 청룡기, 대붕기 16강 진출 등 매년 꾸준한 성적을 거두며 새로운 야구 명문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

특히 화순고 야구부는 전국 군 단위 고교 중 유일한 야구팀이다.

올해에는 화순고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내야수 김선빈이 지역 연고팀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유니폼을 입었다.

이건열 선임 감독은 “화순고 야구부는 야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전국 최고다. 이번 겨울동안 팀원들과 열심히 준비해 2008년엔 창단 후 첫 전국대회 우승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면서 “프로에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순고 야구부를 전국 최강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2000년 SK와이브즈 코치로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 이건열 선임 감독은 LG트윈스타격코치를 거쳐 2007시즌까지 KIA에서 타격 코치를 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야쿠르트 임창용  
기속사 생활 자청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 입단한 사이드암 투수 임창용(31·사진)이 빠른 적응을 위해 기속사 생활을 자청했다.

일본 스포츠신문

문지 스포츠닛폰은 20일 임창용이 외국인선수로서는 이례적으로 기속사 입소를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에 진출했던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과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 등은 별도 주택을 얻어 생활했다.

이 신문은 임창용이 “젊은 선수들과 하루라도 빨리 친해지고 싶다”며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기속사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임창용은 앞서 3년 최대 500만달러(한화 45억여원)를 받는 걸 조건으로 야쿠르트와 계약했다.

이 신문은 야쿠르트가 지난 시즌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활약했던 다니엘 리오스(35)를 2년 총 3억엔에 영입함에 따라 임창용을 셋업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임창용은 전 소속팀 삼성의 양해를 얻어 지난 12일부터 경산 볼파크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



20일 영국 런던 스탬퍼드브리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2008 칼링컵 8강에서 리버풀의 모모 시소코(오른쪽)가 첼시의 스콧 싱클레어에게 태클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스

램퍼드·셈첸코 연속골  
첼시, 칼링컵 4강 합류

잉글랜드 축구 칼링컵 2연패를 노리는 첼시가 리버풀을 잡고 대회 4강에 합류했다. 첼시는 20일 영국 런던 스탬퍼드브리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2008 칼링컵 8강에서 후반 프랭크 램퍼드, 안드리 셉첸코가 연속골을 터뜨려 리버풀을 2-0으로 완파했다.

정반 이렇다할 찬스를 잡지 못한 첼시는 후반 13분 램퍼드의 골절된 슈트 골문으로 달려들고 후반 종료 직전 셉첸코가 마무리 골을 뽑아 난적 리버풀을 침몰시켰다.

리버풀은 후반 15분 장신 스트라이커 피터 크라우치가 첼시의 존 오비 미켈에게 심한 태클을 해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려 추격할 힘을 내지 못했다.

이로써 칼링컵 4강은 첼시-에버턴, 아스널-토트넘의 대결로 압축됐다. 준결승 1차전은 내년 1월7일, 2차전은 1월21일 열린다.

피스컵 국제축구대회  
2009년 스페인서 개최  
레알 마드리드 참가

세계적 클럽축구 대항전으로 자리매김한 피스컵 국제축구대회가 2009년에는 스페인에서 개최된다. 스페인 명문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올해 대회 우승팀 올랭피크 리옹(프랑스) 등 강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피스컵 조직위원회는 19일 스페인의 세비야 시청에서 유럽의 언론과 축구협회 관계자, 주정부 관계자 및 개최지 시장 등을 초청해 2009년 피스컵을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5개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역년제로 치러지는 피스컵은 2003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열린 3회 대회까지 모두 한국에서 열렸으며 해외 개최는 2009년 이 처음이다.

스페인 대회는 2009년 7월 마드리드, 세비야, 레알레, 말라가, 우엘바에서 치러진다.

조직위에 따르면 모나코,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등이 대회 유치 의사를 밝혔으나 스페인 안달루시아로 최종 결정됐다. 또 레알 마드리드와 올해 대회 우승팀 리옹을 비롯해, 세비아(스페인)의 참가가 확정적이다.

피스컵 수익금을 통해 제3세계 축구발전과 유소년 축구지원사업을 해온 ‘피스 드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레알 마드리드와 안달루시아 정부가 공동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대회 이전에 ‘피스 콘서트’ 등 국제적 이벤트도 기획 중이다. 광장 대회 조직위원장은 “축구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대회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한 단계 도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지성 출격 D-2



23일 밤 9시 에버턴전  
무릎 부상 8개월여만에

드디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민 미드필더’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사진)이 오랜 부상을 털어내고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 돌아온다.

복귀전은 한국시간 23일 오후 9시 에버턴을 상대로 펼쳐질 2007~2008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홈 경기가 될 전망이다.

박지성은 19일 올드램 에슬레틱과 팬커서 시니어컵 2군 경기에 출전해 감각을 조절하려 했지만 그라운드가 얼어붙어 경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출전 자체가 불발했다.

지난 7일 2군 경기도 쪽우로 취소됐다. 지난 9일 연습경기에 한 번 출전한 게 전부다. 일각에선 조기에 투입하는 게 무리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이 박지성의 복귀전을 며칠 미룰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러나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은 출전에 문제가 없다. 연습경기에서도 단연 돋보였다”고 미리 말했던 점에 비해 예상대로 에버턴전에 출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맨유도 박지성의 복귀를 23일로 예고했고 앞서 홈페이지에 별도 인터뷰를 실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미어리그가 성탄절 휴가를 전후한 ‘복싱데이’ 시즌을 맞아 두 주에 세 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하기에 맨유 입장에서도 ‘전군만마’가 될 박지성의 복귀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3월31일 블랙번 로버스와 정규리그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치고도 불의의 무릎 부상을 당해 쓰러졌던 박지성은 무려 267일만에 그라운드를 다시 나서게 된다.

8개월 하고도 보름이 넘는 긴 시간이다. 축구화를 신고 이렇게 오래 쉬어본 적도

없다. 미국으로 건너가 무릎 수술을 받고 기나긴 재활을 거쳤다.

처음엔 목발에 의지해 다녀야할 정도로 중상이었지만 선수 본인의 강한 의지와 특유의 성실함, 그리고 맨유의 과학적인 재활 프로그램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공교롭게도 에버턴은 2005년 8월13일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던 상대 팀이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6위로 맨유로서도 결코 알뜰 수 없는 상대.

이동국(미들즈브러)의 주전 경쟁 상대였던 나이지리아 공격수 아예그베니 야쿠부 등이 버티고 있는 팀이자 맨유 간판 웨인 루니의 친정 구단이다.

박지성은 앞선 홈페이지 인터뷰에서 “복귀하면 2~3경기 안에 골을 넣겠다”고 공언했다.

부상 직전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던 터라 각박한 되찾는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맨유는 박지성의 경쟁자로 포르투갈 국가대표 나니를 영입했지만 아직 퍼거슨 감독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 최종 후보까지 오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부동의 날개 중 한 명이라고 본다면 베테랑 라이언 깁스, 나니와 날개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쳐야 할 박지성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러나 이미 맨유에서 2년을 보낸 박지성이 주눅들거나 경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케이비·위성 스포츠 전문채널 MBC ESPN은 박지성의 복귀전으로 예상되는 맨유-에버턴전을 생중계하고 앞서 21일에는 박지성 하이라이트도 따로 모아 방영한다.

골프·콘도 회원권기대 전문기업

**룩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세/부채	골프장	시세/부채
경주	3,400	울진	900
남양주	4,200	파인힐스	12,000
승주	7,900	한평	7,300

상담 문의 (062)351-0095